

# '실속있는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한 전시회'

온라인 인포메이션 홍콩(Online Information HongKong)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홍콩의 Regent 호텔에서 영국의 Learned Information사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카데미 출판사(Academic Press)를 비롯 42개 업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CD-ROM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과 유럽의 정보제품과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정보를 담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안계성/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교육사업과장

온라인 인포메이션 홍콩(Online Information HongKong)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홍콩의 리전트 호텔에서 영국의 Learned Information사의 주최로 열렸다. 개최 2회째를 맞는 아시안 인포메이션 미팅(Asian Information Meeting)과 더불어 열린 이 행사는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하고 2년만에 다시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카데미 출판사(Academic Press)를 비롯 42개 업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CD-ROM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과 유럽의 정보제품과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정보를 담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각종 전문(Full-text) 데이터베이스 및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업체나 제

공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전시회 현황

홍콩 리전트 호텔 2층에 마련된 전시회장은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깔끔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부스에 각종 제품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실속있게 이루어졌다. 먼저 안내데스크에서 등록을 하고 전시회에 출품한 회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시장을 한바퀴 둘러보고 집중적으로 관람할 부스를 모색했다. 관람객들은 한 부스에 한두명 정도였고, 각 부스의 담당자들은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컴퓨터로 직접 구현해보이기도 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전문 데이터베이스 CD-ROM과 인터넷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대거 출품되어 전시장에는 PC만 몇대 있을

뿐 부스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것이었다. 42개 참가업체 중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업체였고, CD-ROM 제품과 병행하여 서비스하는 회사도 많았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정보,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도 비즈니스 도시인 홍콩과 걸맞는 것 같았다.

전시회에 출품한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곳과 그 특징을 소개하자면, 먼저 과학기술분야 출판사로 알려진 아카데미 출판사는 현재 200여개 잡지에 대한 전문을 인터넷상으로 서비스하는 IDEAL 시스템을 소개했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세계 뉴스를 서비스한다는 것을 소개했다. 또, 이 출판사는 최근들어 책자보다 디지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미지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계 박물관

등에서 6만여점의 예술품을 이미지로 처리하여 이미지 디렉터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톰슨(Thomson)사의 자회사인 델웬트(Derwent)사에서는 전세계 특허 정보를 담은 CD-ROM을 전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분야 출판사인 엘서비어 사이언스(Elsevier Science)도 1,200개 잡지에 대한 전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다이알로그(Dialog)와 데이터스타(Datastar)로 잘 알려진 나이트-리더(Knight-Ridder)사에서는 최근 유럽과 아시아 지역 신문의 전문정보를 전 세계로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즈니스 분야의 KR 비즈니스베이스와 문헌배달 서비스인 KR 소스원(SourceOne), 17,000여종의 잡지에 수록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언커버(UnCover), 각종 주제분야의 CD-ROM 제품에 대한 KR 온디스크(OnDisc)를 전시했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사에서는 전 세계 뉴스, 법률정보 중심의 제공체제에서 벗어나 비즈니스를 비롯한 회계, 시장정보, 의학 등 취급분야를 여러 주제분야로 확대 서비스하고 있다. 학술중심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고 있는 오비드 테크놀로지(Ovid Technologies)사는 230여종의 잡지를 대상으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홍콩 지역서버인 'The Ovid HongKong Fixed Fee Service'를 추진하고 있었다.

CD-ROM, 디스켓,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참조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는 실버플래터(Silverplatter)사에서는 최근에 미드라인(Medline)을 인터넷, FTP, 테이프는 물론 DVD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논문과 마이크로 필름으로 잘 알려진 UMI사에서는 3개 분야의 잡지 약 1,000종의 전문을 CD-ROM으로 제공했으며, 생의학에 관한 잡지 200여종의 전문정보 CD-ROM을 올 6월중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동향은 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비스에 들어갔다.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 컴패스(COMPASS)에서는 동남아시아지역 15개, 유럽지역 18개 등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를 CD-ROM으로 제작 유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0만개 회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1995년에 설립한 SCMP 포스트넷사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인터넷과 CD-ROM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는 400여종의 다른 신문에서도 기사를 발췌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처럼 전시회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제품은 예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고 있었으며, CD-ROM을 통한 서비스와 온라인, 특히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각 주제분야별로 잡지의 기사와 신문의 뉴스정보를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2차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1차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이용도 광범해지고 편리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컨퍼런스의 주제도 대부분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 웹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는 정보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전시제품과 컨퍼런스 주제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이 매우 유용하게 최근 동향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실질적인 비즈니스도 이뤄져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각 업체의 최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했으며, 전시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실속있는 정보교류의 한마당이였다.

전시회의 성격과 전시장 분위기도 잘 맞았고 부스에 나와있는 업체 직원이 주로 매니저나 부사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각 전시장에서 최근 동향과 제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업체 직원의 모습과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직원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카락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매니저나 회사의 중역을 보면서 정보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다는 새삼 느꼈다. 또한 전시회의 성격상 한 곳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돌아가면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HC**